

분리된 이중다발 동종 아킬레스건을 이용한 관절경적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윤경호 · 배대경 · 임찬택 · 정선택 · 정비오

목 적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시간에 따라 후방전이가 증가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건술의 실패는 슬관절 운동시 이식건에 작용하는 부하가 일정하지 않아서 이식건이 이완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해부학적이고 관절운동 전 범위에 걸쳐 안정성을 줄 수 있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분리된 이중다발 동종 아킬레스건을 이용한 관절경적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후 그 임상적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3월부터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분리된 이중다발 동종 아킬레스건을 이용한 관절경적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고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22명, 23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추시기간은 최단 12개월에서 36개월로 평균 25 개월이었다. 평균 연령은 28.4세로 최소 17세에서 최장 43세 였다. 동반손상은 전체 23례 중 골절이 9례(39%)로 가장 많았으며 후외측부 손상 7례,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 6례, 전방십자인대 손상 5례,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 4례, 외측 측부인대 손상 4례, 내측 측부인대 손상 3례, 연골 손상 2례 등이 있었다. 결과 판정을 위하여 술 전 및 술 후 최종 추시시의 Lysholm knee score와 후방 부하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Lysholm knee score는 술 전 평균 59.4점에서 술 후 최종 추시시 평균 92.8점으로 호전되었다. 후방 부하 방사선 검사를 이용한 정상측과 비교한 후방 전이의 차이는 술 전 평균 12.7(10~26) mm에서 술 후 최종 추시시 평균 2.3(1~6) mm로 향상되었으며 이중 16례(70%)에서는 0~2 mm, 5례(22%)에서는 3~5 mm 그리고 2례(8%)에서는 6~0 mm의 후방 전이의 차이를 보였다.

결 론

저자는 분리된 이중다발 동종 아킬레스건을 이용한 관절경적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여 1년 이상의 추시상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분리된 이중다발 동종 아킬레스건을 이용한 관절경적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후방십자인대의 전외측 및 후내측 다발을 보다 해부학적으로 재건하여 관절운동 전 범위에 걸쳐 안정성을 줄 수 있고 이중다발을 사용하여 넓은 대퇴 부착부와 강한 이식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 만한 수술법으로 사료된다.